

사회적 지위 불일치 유형에 따른 의복 선택 기준 연구

조 인 경 · 이 은 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A Study on Clothing Selection Criteria as Related to Status Inconsistency

In Kyung Cho and Eun Young Rhee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2. 8. 10 접수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dentify the most explainable socioeconomic variables influencing clothing selection criteria, and to explore the difference in the clothing selection criteria among the groups with status inconsistencies.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to collect data for clothing selection criteria, and socioeconomic status. Socioeconomic status was measured by education and occupation of husband and wife, and family income. Status inconsistency was defined by the inconsistencies among education, income and occupation. Data were obtained from 369 housewives living in Seoul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The education of housewives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fluencing clothing selection criteria.

2) When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status inconsistency group, there were parti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in clothing selection criteria. The "overprivileged" status group attached more importance to the fashionability and psychological dependence than the other status group. The "underprivileged" status group attached more importance to the practicality and economy than the other status group.

And when the subject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ir social mobility,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in clothing selection criteria.

I. 서 론

사회계층 개념이 소비자 행동을 규명하는데 유용한 요

인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계층 자체가 지닌 측정의 어려움과 몇가지 오류로 인하여 소비자행동 연구에 기여하는 공헌도는 매우 낮았다. 그 이유는 사회계층 변수들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독특한

소비행동을 가져 올 수 있는 지위불일치집단에 대한 연구가 없었으며, 현재의 사회계층이 같아도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의 사회계층이 다르면 소비행동이 다를 수 있다¹⁾는 가정을 무시하여 사회계층이동은 고려하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의복선택기준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계층 변수를 찾아내고, 소비자행동 연구에서 무시되어 왔던 지위불일치한 집단과 계층이동을 경험한 집단을 규명하여 이들 집단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혀내려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계층과 소비자행동

사회계층이란 유사한 품격과 자존욕구를 갖는 사람의 집단으로서, 그들의 사고와 행동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신념, 태도 및 가치가 공통성을 나타내는 유사한 집단을 말하며²⁾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므로 소비자행동 연구에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3,4)}. 첫째, 각 계층내의 사람들은 유사하게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고, 둘째, 계층적 집단들 사이에는 순위관계가 존재한다. 셋째, 개인의 사회계층은 다차원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넷째, 한 사회계층에서부터 다른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다.

사회계층 연구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측정방법의 문제인데, 한국사회의 계층 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지위 차원들은 직업, 소득 및 교육지위라고 할 수 있다⁵⁻⁷⁾.

2. 지위불일치와 소비자행동

사회가 복잡해지고 분화되면서 다차원적인 사회계층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고 이때 문제시되는 것이 지위불일치인 것이다⁸⁾. 지위불일치의 개념은 개인의 우열을 구분하는 지위속성 즉, 교육, 직업, 종교, 사회적 권력, 인종, 혈연, 지연적 신분지위들이 한 사회의 위계질서 내에서 얼마나 근접 또는 상충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지위불일치한 개인은 심리적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긴장해소책을 추구하게 된다⁹⁾.

Coleman¹⁰⁾과 Peters¹¹⁾는 사회계층을 사용하여 시장을 세분화하였는데 소득이나 직업과 같은 변수를 각각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소득과 직업수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매행동이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Coleman¹⁰⁾은 자기계층의 평균보다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과대혜택자(Overprivileged)라고 하고 또 평균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과소혜택자(Underprivileged)라고 하였다. 이런 개념은 어떤 종류의 구매행동을 명시해 주는데, 한때 칼라 TV가 모든 사회계층과 소득계층에 비교적 고르게 보급되어 있었지만 계급별로나 소득별로도 그 구매자들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Social research 사에서는 칼라 TV를 구매한 사람들이 주로 각 사회계층의 과대혜택자들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¹²⁾, 또한 이들이 고급 중형차에 대한 주요한 구매자임을 밝혀내었다¹⁰⁻¹²⁾.

지위유형을 분류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Coleman의 지위불일치 유형 외에 교육과 직업, 소득을 강조한 Geschwender¹³⁾에 의한 분류가 우리 현실에 맞다고 할 수 있는데, 그는 교육은 성취적 투자로, 인종은 귀속적 투자로, 직업은 사회적 보상으로, 소득은 물질적 보상으로 규정하고 투자지위에 비해 보상지위가 낮은 자들을 보상미달형 지위불일치자로, 투자지위에 비해 보상지위가 높은 자들을 보상과잉형 지위불일치자로 유형화하였다⁸⁾.

Fisher는 사회계층이 일관성이 없을때 개인에게 있어서 불안정을 가져오며 지위상징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다¹⁴⁾. 과소비는 직업적 지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입이 부적절하게 얻어짐에 바탕을 두며 그들의 소비는 소비만족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보상심리에서 생긴다고 할 수 있다¹⁵⁾. 특히 여성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단서를 제공하는 의류제품은 지위불일치한 자들에게 있어 긴장해소와 보상심리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3. 사회계층이동과 소비자 행동

현재의 사회계층이 같아도 어린시절 문화습득 과정, 즉, 초기사회화 과정에서의 사회계층이 다르면 소비자행동도 다를 수 있으므로¹⁾ 사회적으로 계층이동하는 사람은 적지만 기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회적 상승의 상징 혹은 선망의 표시로서 사회적으로 현시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 소비하며 혁신 수용적이기 때문이다⁷⁾. 또한 사회계층이동이 가능한 사회에서 사회계층 연구시 개인의 Life-cycle이 고려되어야만 한다¹⁴⁾. Bettman과 Jin¹⁶⁾은 습관적 선택은 과거 계층에 기초하며, 선택과정에 창의성을 요구하는 독

특한 결정의 경우 현재 계층에 기초한다고 하였다. 복식행동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유동적인 소비자들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4. 사회계층에 따른 복식행동에 관한 국내연구

이금실은¹⁷⁾ 가장의 직업에 따른 경제수준과 유행추종 정도와는 관계가 있으며, 지위불일치 정도가 높은 사람은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유행에 관심이 높다고 하였다. 이선경은¹⁸⁾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의생활을 한다고 하였으나 김정호는¹⁹⁾ 30대 가정주부에서만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의복중요성에 관하여 높은점수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외에도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²⁰⁾, 앞에서 언급한 사회계층연구의 몇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회계층과 복식행동을 관련시킨 연구들 사이에는 일관성이 없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의복선택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 변수를 밝힌다.

연구문제 2. 지위 불일치 유형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의 차이를 밝힌다.

- 2-1) 주부의 교육, 가장의 직업, 가계소득 등 각 사회계층 변수들을 조합하여 지위불일치 유형을 규정하고, 유형별 의복선택기준의 차이를 밝힌다.
- 2-2) 사회계층이동 정도에 따라 대상을 유형화하여 유형별 의복선택기준의 차이를 밝힌다.

2. 측정도구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사회계층 측정문항과 의복선택기준 측정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사회계층 측정은 객관적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김영모^{6,21)}, 홍두승²²⁾ 등이 한국사회에 적합하다고 발표한 교육과 직업, 소득 등을 주부와 남편, 주부의 부친 것을 각각 측정하였다.

사회계층이동은 측정의 어려움이 따르는데 여기서는 두가지 방법에 의해 측정되었다. 1차로 결혼 전후의 생활수준을 최하류에서 최상류까지 9점 척도로 측정하는 주관적 측정방법으로 3점 이상 상승한 집단을 상향이동

집단, 3점 이상 하향한 집단을 하향이동집단, 3점 이하의 점수차가 난 집단을 계층계승집단으로 유형화하여 사회계층이동을 측정하였고, 2차로 주부와 주부의 부친의 교육수준을 사회계층의 대응지표로하여 교육수준차이에 의한 사회계층이동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였다⁶⁾.

의복선택기준으로 의복평가기준은 김미영²³⁾이 신뢰도와 타당도검사를 거쳐 사용한 문항으로 유행성, 신분상징성, 실용성, 경제성 등 24문항을 사용하였고, Parnak^{24,25)}이 개발한 자타위주의 의복착용 9문항, Creekmore²⁶⁾의 의복의 심리적 의존성 6문항을 사용하여 5점 평정 척도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표집대상을 서울거주 21세~60세까지의 기혼여성으로, 사회계층분포를 고려하여 강남과 강북 각 지역에서 표본을 수집하였고 연령은 20대가 5명, 30대가 52명, 40대가 262명, 50대가 30명 이었으며 취업주부가 83명, 전업주부가 282명 이었다. 1989년 9월에 실시하여 369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SPSS/PC Package를 이용하여 피어슨의 상관계수, 중회귀분석, 분산분석, DUNCAN test, t-test 등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논의

1. 의복선택기준에 대한 사회계층변수의 설명력

사회계층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장의 교육수준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았으므로 주부의 사회계층을 측정하는데 그 가장의 교육수준 변수는 제외시켰다.

의복선택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변수 즉, 주부의 교육수준과 연령, 가계소득, 가장의 직업적 지위변

<표 1> 사회계층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가계소득	가장의 직업	가장의 교육	주부의 직업
주부의 교육	0.2838**	0.1545*	0.6538**	0.1526*
가 계 소 득		0.0725	0.1882**	0.0690
가장의 직업			0.2551**	0.1855**
가장의 교육				0.0243

* : p<0.01 에서 유의한 상관계수

** : p<0.001 에서 유의한 상관계수

<표 2> 의복선택기준에 대한 사회계층변수의 회귀 분석결과

	주부의 교육	연 령	주부의 직업 D ₂ **	회기상수	상징계수
유행성	0.1066**	-0.1303**	-0.0884	12.5909	0.0450
신분상징성	-0.0373	-0.0645	-0.1425**	23.0287	0.0294
실용성	-0.2901***	0.1452***	0.0402	17.1145	0.0990
경제성	-0.1866***	0.1222**	0.0412	15.9306	0.0765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0.1964***	-0.1280**	0.0174	16.2367	0.0735
심미적 의존성	0.2120***	-0.1139**	-0.0615	22.6472	0.0801

** : p<0.05 에서 유의한 회귀계수

*** : p<0.001에서 유의한 회귀계수

**D₂ : 주부의 직업을 모조변수화한 것으로 하위직=1이고 상위직과 무직=0

수의 설명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여성의 직업적 지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여성의 직업적 지위를 모조변수(Dummy variable)로 첨가하였는데 D₁은 직업유무로 무직은 0, 유직은 1로 하였고 D₂는 직업의 지위로 상위직과 무직은 0, 하위직은 1로 첨가하였다. 단계적 분석(Stepwise) 방식으로 회귀분석한 결과 유의한 설명력을 가진 변수만 제시하면 <표 2>와 같다.

회귀분석결과 신분상징성을 제외한 모든 종속변수에 대하여 가장 설명력 있는 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이었다. 즉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행성을 중요시하며 타인위주의 의복착용과 심리적 의존성이 크며 실용성과 경제성을 덜 중요시함을 알 수 있었다. 신분상징성의 경우 단지 여성의 직업에 의한 영향이 가장 높았는데, 하위직 주부가 상위직과 전업주부에 비하여 의복의 신분상징성을 덜 중요시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의복선택기준을 사회계층을 바탕으로 연구함에 있어 가장의 직업지위뿐만 아니라 여성의 직업지위가 고려되어야 할 변수임을 나타내는 것이다^{1,20)}. 이와같은 사회계층변수는 자기위주의 의복착용 변인에서는 유의한 설명력을 지니지 못했다²⁵⁾. 또한 연령의 설명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회계층 연구에 있어 개인의 생활주기(Life-cycle)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⁴⁾.

이상의 결과에서 결정계수는 매우 낮았으며 각각의 사회계층변수의 설명력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2. 의복선택기준에 대한 지위불일치 효과

주부의 직업변수를 범주화 하기에는 취업주부의 비율

<표 3> 각 사회계층변수의 범주화 기준 및 표본분포(표본 : 명)

지위변수	주부의교육	가계소득	가장의 직업
상	대학졸업 이상(181)	150만원 이상(138)	전문직, 경영관리직(94)
중	대학중퇴 이하, 고등학교졸업 이상(148)	150만원 미만, 40만원 초과(181)	사무직, 전문기술직과 생산, 판매, 서비스직중 상위범주(237)
하	고등학교중퇴 이하(33)	40만원 이하(36)	무직, 농업, 생산, 판매 서비스직중 하위범주(32)

이 낮아 주부의 직업변수는 제외시키고, 주부의 교육, 가장의 직업, 가계소득변수를 상, 중, 하로 범주화하여 지위불일치집단을 유형화하였다. <표 3>은 김영모⁶⁾의 1982년 인구 센서스 분석에 관한 연구와 한국통계연감(1989)²⁷⁾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가계소득은 82년과, 89년 사이의 평균 가계소득 증가율 300%를 가산하여 분류하였다.

분석은 표본의 Life-cycle을 고려하여 각각 3회 실시하였는데 1차로 전연령층을 대상으로 하였고, 2차로 40대 이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3차로 40대 이후만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직업과 소득간의 지위불일치 효과

Coleman¹⁰⁾의 분류를 기초로 가장의 직업과 가계소득을 조합하여 직업지위에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과대해택자집단(29.1%), 직업지위와 소득수준이 일치하는 지

위일치집단 56.4%), 직업지위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과소혜택자집단 14.5%로 유형화하였으며, 표본의 분포는 표 4와 같다.

<표 4> 직업과 소득을 조합한 지위 유형별 표본분포

직업 \ 소득	상	중	하
상	54 ^{b)}	76 ^{b)}	8 ^{a)}
중	37 ^{c)}	140 ^{b)}	18 ^{b)}
하	1 ^{c)}	13 ^{c)}	4 ^{b)}

- a) 과대혜택자집단
- b) 지위일치집단
- c) 과소혜택자집단

위의 새집단의 차이를 보기위하여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한 결과 유행성, 실용성, 경제성, 심리적 의존성 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종속변수만을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 5>의 결과를 보면 유행성의 경우 과대혜택자가 과소혜택자에비하여 유행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성의 경우 40대 이상의 표본집단에서만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과소혜택자가 과대혜택자에 비하여

<표 5> 직업과 소득을 조합한 지위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의복 선택기준의 평균점수와 분산분석, DUNCAN-test 결과

종속변수	지위유형	과대혜택자	지위 일치형	과소혜택자	분산분석
유행성		12.4905	12.2923	11.52086	F값=
던컨테스트		A	AB	B	2.3649*
실용성 ^{a)}		16.8974	17.4581	18.1250	F값=
던컨테스트		B	AB	A	2.9211*
경제성		14.9367	15.7226	15.8250	F값=
던컨테스트		B	AB	A	3.9178*
심리적의존성		24.5446	23.5206	23.2600	F값=
던컨테스트		A	AB	B	2.4257*

* : p<0.05

a) 40대이후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만 유의하게 나타나는 종속변수.

실용성 점수가 높았다. 경제성의 경우 과소혜택자집단이 과대혜택자집단에 비하여 경제성 점수가 높았다. 심리적 의존성의 경우 과대혜택자집단이 과소혜택자집단에 비하여 심리적 의존성 점수가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Coleman¹⁰⁾과 Peters¹¹⁾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동일한 소득수준이라도 직업지위가 다를 경우 사회적 열망의 차이로 인하여 자유처분소득(Discretionary income)에 차이를 가져와 의복선택기준에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2) 교육과 소득간의 지위불일치 효과

Geschwender의 분류를 기초로 주부의 교육과 가계소득을 조합하여 교육수준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높은 보상과잉형집단(17.7%), 지위일치집단(58.1%), 교육지위에 비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보상미달형집단(24.2%)으로 분류되었으며, 표본의 분포는 <표 6>과 같다.

<표 6> 교육과 소득을 조합한 지위유형별 표본 분포

교육 \ 소득	상	중	하
상	97 ^{b)}	39 ^{a)}	1 ^{b)}
중	77 ^{c)}	98 ^{b)}	22 ^{b)}
하	1 ^{c)}	7 ^{c)}	9 ^{b)}

- a) 보상과잉형 지위불일치집단
- b) 지위일치집단
- c) 보상미달형 지위불일치집단

<표 7> 교육과 소득을 조합한 지위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의복선택기준의 평균점수와 분산분석, DUNCAN-test 결과

종속변수	지위유형	보상과잉형	지위 일치형	보상미달형	분산분석
유행성		11.7742	12.5644	11.8625	F값=
던컨테스트		B	A	B	3.4267*
타인위주 의복착용		15.8696	17.0988	17.4853	F값=
던컨테스트		B	AB	A	3.4267*
심리적의존성 ^{a)}		22.0455	23.9811	23.7612	F값=
던컨테스트		B	A	A	3.7884*

* : p<0.05

a) 40대이후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중속변수에 대하여 세 집단간의 차이를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를 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중속변수만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표 7>의 결과를 보면 유행성의 경우 지위가 일치하는 집단이 불일치하는 집단에 비해 유행성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사회계층이동을 원하는 집단이 유행을 더 따른다는 Barber와 Lober²⁸⁾의 연구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하향전과가 지지되던 과거의 연구들과는 달리 더 이상 유행을 계층경합의 측면에서 해석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위일치자가 중, 상류층에 밀집되어 있으므로 중, 상류층의 특성으로 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타인위주의 의복착용과 심리적 의존성의 경우 보상미달형 불일치집단이 보상과잉형불일치집단에 비하여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과 심리적 의존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결국 같은 소득계층이라도 교육수준에 따라 의복행동에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교육과 직업간의 지위불일치 효과

주부의 교육과 가장의 직업을 조합하여 교육수준에 비하여 직업지위가 높은 보상과잉형 지위불일치집단(12.3%), 지위일치집단(52.7%), 교육수준에 비하여 직업지위가 낮은 보상미달형 지위불일치집단(35.0%)으로 유형화하였으며, 표본의 분포는 <표 8>과 같다.

<표 8> 교육과 직업을 조합한 지위유형별 표본분포

직업	교육	상	중	하
상		71 ^{b)}	21 ^{a)}	1 ^{a)}
중		103 ^{c)}	107 ^{b)}	22 ^{a)}
하		6 ^{c)}	16 ^{c)}	10 ^{b)}

- a) 보상과잉형 지위불일치집단
- b) 지위일치집단
- c) 보상미달형 지위불일치집단

위의 세 집단간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중속변수만 제시하면 <표 9>와 같다.

<표 9>의 결과를 보면, 유행성의 경우 40대이하의 표본에서 보상미달형 불일치집단이 보상과잉형 불일치집단에 비해 유행성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용성과 경제성의 경우 보상과잉형 불일치집단과 지위일치집

<표 9> 교육과 직업을 조합한 지위집단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의복선택기준의 평균점수와 분산분석, DUNCAN-test 결과

중속변수	지위유형 과잉형	지위 일치형	보상 미달형	분산분석
유행성 ^{a)}	11.4722	11.9510	12.6061	F값=
던컨테스트	B	AB	A	3.0823 [*]
실용성	18.1143	17.8056	16.5714	F값=
던컨테스트	A	A	B	7.8121 ^{***}
경제성	16.3714	15.7431	14.9192	F값=
던컨테스트	A	A	B	7.4777 ^{***}
타인위주 의복착용	16.9167	16.6503	17.4653	F값=
던컨테스트	AB	B	A	2.5567 [*]
심리적의존성	21.8293	23.7500	24.6260	F값=
던컨테스트	B	A	A	6.5237 ^{***}

* : p<0.05 *** : p<0.005

a) 40대이후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에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단이 실용성과 경제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의 경우 보상미달형 불일치 집단이 지위일치집단에 비하여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의존성의 경우 지위일치집단과 보상미달형 불일치집단이 심리적 의존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교육의 영향으로 돌릴 수 있는데, 가장의 직업지위는 주부의 의복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반면 주부의 교육수준변인은 직접적이고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조합은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이상의 분석을 40세 이전의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는 지위불일치집단간의 유의한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40세 이후의 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더욱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계층이동의 기회가 존재하므로 지위불일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으나^{29,30)} 40세 이전의 주부의 표본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

3. 의복선택기준에 대한 사회계층이동 효과

유형화된 사회계층이동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를 보기

<표 10> 사회계층이동에 따른 집단간 의복선택기준의 평균점수와 분산분석, DUNCAN-test 결과

종속변수	이동유형	상향이동	계층계승	하향이동	분산분석
실용성 ^{a)}		17.5764	16.5646	17.8281	F값=
던컨테스트		A	B	A	7.5349 ^{***}
경제성 ^{a)}		15.6096	15.2937	14.9091	F값=
던컨테스트		A	AB	B	2.2709
타인위주 의복착용 ^{b)}		17.6870	16.8643	16.8750	F값=
던컨테스트		A	B	AB	3.3939 [*]

* : p<0.05

*** : p<0.001

- a) : 생활수준의 변화로 측정된 사회계층이동에 따른 결과.
- b) : 부친과의 교육수준의 차이로 측정된 사회계층이동에 따른 결과.

위하여 분산분석과 던컨테스트한 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종속변수만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의 결과를 보면, 생활수준의 차이에 의한 계층 이동에서는 실용성과 경제성에 있어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실용성의 경우 계층이동을 경험한 집단이 계층이동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실용성 점수가 높았다. 경제성의 경우는 상향이동한 집단이 하향이동한 집단에 비하여 경제성 점수가 높았다. 이것은 유행성, 신분상정성과는 달리 실용성과 경제성등은 초기 사회화 과정에서의 사회계층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¹¹⁾.

결혼전의 가계소득수준과 부친의 직업지위는 시점에 따라 상대적인 것으로 비교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교육수준만을 사회계층이동의 객관적인 대용지표로 사용하여, 부친과의 교육수준차이로 측정된 계층이동에서는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에 있어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상향이동한 집단이 계층을 세습한 집단에 비해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점수가 높았다. 이 결과는 상향이동한 집단이 자신의 계층상승의 상징으로 사회적으로 현시성이 높은 의복을 이용하고 있음을 부분적으로 의미하는 것이며, 이들은 초기 사회화 과정의 영향으로 실용성과 경제성을 중요시 하지만¹¹⁾ 계층상승을 나타내려는 경향이 있어 타인위주의 의복착용을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행동 연구에 있어 사회계층 연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한국사회에 적합한 사회계층 변수를 찾아낸 뒤, 각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의 차이를 규명하고, 사회계층 연구의 시각을 넓혀 지위불일치와 계층이동에 따른 의복선택기준의 차이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계층변수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을 나타내었지만, 유행성과 실용성, 경제성,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심리적 의존성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사회계층변수는 주부의 교육수준이었다. 주부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교육수준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한 가계의 교육수준이 의복선택의 중요한 사회계층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신분상정성에 대하여서는 여성의 직업적 지위만이 설명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자기위주의 의복착용은 사회계층 변수와 관련이 없었다.

2. 유형화된 지위불일치집단에서 과대혜택자집단이 유행성과 심리적 의존성 점수가 높았고, 과소혜택자집단이 실용성과 경제성점수가 높았다. 또한 주부의 교육과 가계소득의 조합에서 보상미달형 불일치집단이 타인위주의 의복착용과 심리적 의존성 점수가 높았고, 주부의 교육과 가정의 직업의 조합에서 보상과잉형 불일치집단이 실용성과 경제성 점수가 높았고 유행성과 심리적 의존성 점수는 낮았다.

3. 사회계층이동에 있어 상향 이동한 집단이 실용성과 경제성, 타인위주의 의복착용 점수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 사회에서는 그 문화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위불일치 효과가 의복선택기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단지 가정의 직업과 가계소득수준의 차이에 따른 지위 불일치집단만이 의복선택기준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므로 사회, 경제적 계층을 종합하여 유형화할 때 이 집단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복식행동과 사회계층을 관련시켜 연구함에 있어 사회계층이동이 유용한 개념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사회계층을 결정하는 변수의 설정과 측정의 문제로 지위불일치 변수를 좀더 조직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지표가 필요한데, 그런 지표가 없어 단지 사회과학에서의 선행연구들과 관례에 따라 지위불일치 유형을 분류한데 무리가 있었고, 지위변

수들 간의 상대적 비중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데 있다. 또한 설문지를 이용한 일회적인 표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큰 제한점이 될 것이다.

앞으로의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소비자 지향적 사회계층 연구를 통하여, 좀 더 극단적인 지위불일치자들과 사회계층이동의 정도가 심한 자들만을 추출하여 복식행동의 차이를 관찰한다면 보다 뚜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연령에 따른 지위불일치 효과에 중점을 두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의복선택기준위에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시킨 지위불일치 효과 또한 연구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1) Shimp, T.A. & Yokum, J.T., Extentions of the Basic Class Model employed in Consumer Research, *Advanced in Consumer Res. J.*, 8, 702-707, (1980)
- 2) 이종하, 소비자 행동과 마케팅 관리, 서울: 박영사, 70, (1975)
- 3) Kotler, P., *Marketing Management: Analysi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Control*, 6th Bd., Prentice-Hall international Editions, 176-177, (1988)
- 4) 임종원, 현대 마케팅 원론, 법문사, 130, (198)
- 5) 한완상,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지위 불일치와 사회의식, 동아문화 제11집, 355-394, (1972)
- 6) 김영모, 한국 사회계층 연구, 서울: 일조각, 332-345, (1982)
- 7) 김연제, 소비자 행동론, 서울: 나남, 81-116, (1987)
- 8) 고종욱, 지위불일치 및 그 효과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 9) 오세철, 한국인의 사회심리, 서울: 박영사, 244-266% (1984)
- 10) Coleman, R.P., The Significance of Social Stratification in Selling, in *Marketing: A Maturing Disciplin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43th national Conference*, Bd. Martin, L. B., Chicago: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71-184, (1961)
- 11) Peters, W.H., Relative Occupational Class Income: A Significant Variable in the Marketing of Automobiles, *J. of Marketing*, 74-77, (1970)
- 12) 송용섭, 현대 소비자 행동론, 서울: 법문사, 242-243, (1985)
- 13) Geschwender, G., Continuities in Theories of Status Consistency and Cognitive Dissonance, *Social Force*, 46, 160, (1967)
- 14) Fisher, J.B., Social Class and Consumer Behavior: The Relevance of Class and Status. *Advanced in Consumer Res. J.*, 13, 492-496, (1987)
- 15) Belk, R.W., Yuppies as Arbiters of the Emerging Consumption Style, *Advances in Consumer Res.*, 13, 514-519, (1986)
- 16) Bettman, J.R. & Zins, M.A., Constructive Processes in Consumer Choice, *J. of Consumer Res.*, 4, 75-76, (1977)
- 17) 이금실, 의복의 신분상징성과 사회 심리학적 변인과의 상관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2), (1978)
- 18) 이선경, 강혜원, 결혼 적응도에 따른 의복행동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1(1), 71-78, (1987)
- 19) 김정호, 사회계층과 의복형태 -서울 시내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2), 45-52, (1978)
- 20) 홍금희, 수용성, 경직성의 성격특성과 의복행동간의 상관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21) 김영모, 한국사회의 직업구조와 변동에 관한 연구, 중앙대 논문집, 23, 313-335, (1979)
- 22) 홍두승,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법문사 (1983)
- 23) 김미영, 생활양식 유형과 의복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 24) Pasnak, M.F., Fashion Innovations Compared with Noninnovations on Clothing Attributes. Self-actualization and Tolerance of Ambigu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 Ann. Arbor, Mich.: University Microfilms, No. 68-15, 140, (1968)*
- 25) 김미영,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불만감과 관련 변인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26) Creekmore, A.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 783, Michigan State Univ.*, 101, (1966)
- 27) 한국통계년감, 제36호, 대한통계협회, (1989)
- 28) Barber, B. & Lobel, L.S., Fashion in Women's Clothes and the American Social System, *Social Force*, 31, (1952)
- 29) Benoit-Smullyan, E., Status, Status Types and Status Interrelationshi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9, 151-161, (1964)
- 30) Goffman, I.W., Status Consistency and Preference for Change in Power Distrib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275-281, (1967)